



INCHEON UNITED
SPONSOR

Premier Sponsor



Official Kit Sponsor



Official Sponsor



Official Partner



제호 THE UNITED / 발행일 2023년 11월 12일 / 등록번호 영등포, 라00591
배포처 인천유나이티드 - 인천시 중구 침와전로 246 인천축구전용경기장 내 3층 / 전화 032-880-5500 / 홈페이지 www.incheonutd.com
기사 인천유나이티드 UTD기자단 / 디자인인쇄소 브랜드 더스포츠커뮤니케이션 - 서울시 영등포구 의성대로 83 한국휴렛팩커드빌딩 22층
* 이 책자에 게재된 글, 사진, 도표 등 모든 기사 저작권은 본사가 소유하며 별행인의 허가 없이는 그 내용을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할 수 없습니다.



OFFICIAL MAGAZINE
2023.11.12 / 제9호

vs JEONBUK PREVIEW

‘열흘 만의 재대결’,
전북 상대로 FA컵 철옹진 펼친다

vs ULSAN PREVIEW

‘우승 획정’ 울산과
리그 마지막 홈경기 치른다

vs YOKOHAMA PREVIEW

‘시즌 마지막 홈경기’,
요코하마 상대로 다시 한번 승리 도전

BLUEMAN INTERVIEW

‘인천 새로운 비상의 주역’ 이명주,
“나는 인천에 우승하러 왔다”

ROOKIE INTERVIEW

리그 2경기 만에 데뷔골 터트린 최우진,
측면 수비수 하면 생각나는 선수가 되고 싶다

IUFC REPORTER REPORT

인천의 2023 시즌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INCHEON UNITED 2023 SQUAD



조성환
HEAD COACH



변재섭
COACH



박용호
COACH



김재성
COACH



김광석
COACH



김이설
GK COACH



오지우
PHYSICAL COACH



김한운
SCOUT



황근우
ATHLETIC TRAINER



파민희
ATHLETIC TRAINER



진도형
ATHLETIC TRAINER



최재혁
PHYSICAL THERAPIST



김민석
TEAM MANAGER



조용희
KIT MANAG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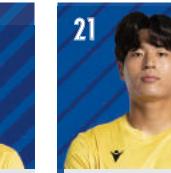
육태훈
PERFORMANCE ANALYST



박준성
INTERPRETER



김동현
GOAL KEEPER



이태희
GOAL KEEPER



민성준
GOAL KEEPER



김유성
GOAL KEEPER



김연수
DEFENDER



오반석
DEFENDER



문지한
DEFENDER



강윤구
DEFENDER



정동윤
DEFENDER



임형진
DEFENDER



김준엽
DEFENDER



엘브리지
DEFENDER



김건희
DEFENDER



김동민
DEFENDER



권한진
DEFENDER



이명주
MIDFIELDER



김도혁
MIDFIELDER



신진호
MIDFIELDER



박현빈
MIDFIELDER



민경현
MIDFIELD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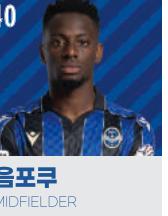
최우진
MIDFIELDER



김현서
MIDFIELDER



박진홍
MIDFIELDER



옵포쿠
MIDFIELDER



김세훈
MIDFIELDER



무고사
FORWARD



에르난데스
FORWARD



제르소
FORWARD



김민석
FORWARD



김보섭
FORWARD



하동선
FORWARD



홍시후
FORWARD



김대중
FORWARD



박승호
FORWARD



천성훈
FORWARD

UEFA CHAMPIONS LEAGUE

요코하마 F. 마리노스	카야 FC 일로일로	산동 타이산
A 09월 19일(화) 19:00 H 10월 03일(화) 19:00 H 11월 28일(화) 19:00	H 10월 25일(수) 19:00 A 12월 13일(수) 17:00	H 10월 07일(화) 19:00 A 11월 07일(화) 19:00

01R	02월 25일(토) 20:30	2	서울 : 인천	1	서울월드컵
02R	03월 04일(토) 14:00	3	인천 : 대전	3	인천축구전용
03R	03월 12일(일) 16:30	1	인천 : 제주	0	인천축구전용
04R	03월 18일(토) 14:00	5	광주 : 인천	0	광주축구전용
05R	04월 01일(토) 16:30	0	인천 : 대구	0	인천축구전용
06R	04월 09일(일) 16:30	2	전북 : 인천	0	전주월드컵
07R	04월 16일(일) 14:00	0	강원 : 인천	2	춘천승암
08R	04월 22일(토) 19:00	2	인천 : 수원FC	2	인천축구전용
09R	04월 25일(화) 19:30	0	인천 : 울산	1	인천축구전용
10R	04월 30일(일) 15:00	0	포항 : 인천	2	포항스틸아트
11R	05월 05일(금) 16:30	0	인천 : 수원	1	인천축구전용
12R	05월 10일(수) 19:30	2	제주 : 인천	0	제주월드컵
13R	05월 14일(일) 16:30	0	인천 : 전북	0	인천축구전용
14R	05월 20일(토) 16:30	1	인천 : 광주	1	인천축구전용
FA컵	05월 24일(수) 19:00	3	인천 : 경남	0	인천축구전용
15R	05월 27일(토) 19:00	2	대구 : 인천	2	DGB대구은행파크
16R	06월 04일(일) 16:30	1	대전 : 인천	3	대전월드컵
17R	06월 07일(수) 19:30	1	인천 : 서울	1	인천축구전용
18R	06월 11일(일) 19:00	0	수원 : 인천	0	수원월드컵
19R	06월 25일(일) 16:30	0	인천 : 포항	1	인천축구전용
FA컵	06월 28일(수) 19:00	3	인천 : 수원	2	인천축구전용
20R	07월 02일(일) 20:00	1	인천 : 강원	0	인천축구전용
21R	07월 08일(토) 19:00	2	수원FC : 인천	2	수원종합
22R	07월 12일(수) 19:00	1	울산 : 인천	2	울산문수
23R	07월 16일(일) 20:00	2	인천 : 대전	0	인천축구전용
24R	07월 22일(토) 19:30	0	서울 : 인천	1	서울월드컵
25R	08월 06일(일) 19:00	2	전북 : 인천	0	전주월드컵
26R	08월 13일(일) 19:30	3	인천 : 대구	1	인천축구전용
27R	08월 18일(금) 19:30	2	인천 : 광주	2	인천축구전용
40R	08월 22일(화) 19:30	3	인천 : 하이퐁	1	인천축구전용
28R	08월 25일(금) 19:00	1	수원FC : 인천	2	수원종합
29R	09월 02일(토) 19:00	0	인천 : 포항	2	인천축구전용
30R	09월 16일(토) 14:00	2	인천 : 제주	1	인천축구전용
31R	09월 24일(일) 16:30	1	강원 : 인천	1	강릉종합
32R	09월 30일(토) 19:00	2	인천 : 수원	0	인천축구전용
33R	10월 08일(일) 15:00	0	울산 : 인천	0	울산문수
34R	10월 20일(금) 19:30	1	포항 : 인천	1	포항스틸아트
35R	10월 28일(토) 16:30	0	광주 : 인천	2	광주축구전용
FA컵	11월 01일(수) 19:00	3	전북 : 인천	1	전주월드컵
36R	11월 12일(일) 14:00	0	인천 : 전북	0	인천축구전용
37R	11월 24일(금) 19:30	0	인천 : 울산	0	인천축구전용
38R	12월 03일(일) 14:00	0	대구 : 인천	0	DGB대구은행파크

-상기 경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변경된 경기 일정과 경기 관련 소식은 인천유나이티드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vs JEONBUK PREVIEW '열흘 만의 재대결', 전북 상대로 FA컵 설욕전 펼친다

글 = 성의주 UTD기자 (sung.euju.shin@gmail.com)

2월부터 달려온 K리그도 끝을 향해가고 있다. 어느덧 파이널라운드도 단 3경기만을 남겨두고 있다. 사상 최초로 K리그, FA컵 그리고 AFC 챔피언스리그까지 병행하며 유독 길게 느껴지는 시즌을 보낸 인천에게는 특히나 시원섭섭할 수밖에 없는 시기다. 더불어 11월은 인천이 홈에서 팬들과 만나는 마지막 시간이기도 하다. 시즌 마지막 홈경기가 될 세 번의 경기에서 인천이 어떤 유종의 미를 거둘지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쉽지 않은 3연속 원정을 치르고 돌아온 인천은 11월 홈 3연전을 앞두고 있다. 처음으로 만날 상대는 전북현대다. FA컵에서 뼈아픈 패배를 안겨준 전북과 약 열흘 만에 재대결을 치르게 된, 운명의 장난 같은 상황이다. 8년 전 준우승의 아쉬움을 딛고 창단 첫 우승을 노려온 인천이었지만, 전북에게 3-1로 패배하며 결승의 문턱에서 발을 돌려야 했다. 인천은 이번 맞대결에서 반드시 승리를 거둬 FA컵에서의 아쉬움을 조금이라도 덜어보고자 한다.

AFC 챔피언스리그와 FA컵에서 짧은 간격으로 패배를 경험하며 인천의 상승세는 다소 주춤하지만 리그 분위기는 좋다. 파이널라운드 첫 경기에서는 리그 2위 포항스틸러스를 만나 무승부를 거뒀고, 두 번째 경기였던 광주FC 전에서는 승리를 거두며 파이널라운드 1승 1무를 기록하고 있다. 이는 파이널 A에 속한 팀 중 가장 좋은 페이스다. 특히 광주전은 팀에게 좋은 영향을 끼쳤다. 대다수가 신인 선수들로 구성된 선발 명단을 앞세워 올 시즌 단 한 번도 이기지 못했던 광주를 이겼기 때문이다. 그야말로 '젊음의 반란'을 일으킨 젊은 선수들은 승점 3점을 가져오며 팀에 활기를 불어넣었다. 더군다나 리그에서는 6경기 연속 무패를 기록하고 있다. 이 상승세가 36라운드 전북과의 경기에서도 이어질 수 있을지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vs ULSAN PREVIEW '우승 확정' 울산과 리그 마지막 홈경기 치른다

글 = 성의주 UTD기자 (sung.euju.shin@gmail.com)

인천이 11월에 홈에서 만날 두 번째 상대는 바로 울산현대다. 인천은 울산과의 맞대결 직전 오랜만의 휴식을 받는다. A매치 휴식기로 인해 생긴 약 열흘간의 휴식기는 최근 짧은 간격 속에 3개 대회를 병행하느라 피로가 쌓인 인천에게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것으로 보인다. 오랜만에 찾아온 휴식 이후에 맞이하는 이번 맞대결은 리그 마지막 홈경기이기도 하다. 정상적인 컨디션으로 돌아온 인천이 홈 팬들 앞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울산은 35라운드 대구와의 경기에서 2-0 승리를 거두며 이미 올 시즌 우승을 확정 지었다. 시즌 최대 목표였던 우승을 이미 달성한 만큼 울산의 라인업을 예상하기란 쉽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유력한 것은 그동안 기회가 많이 없던 선수들의 경기 출전이다. 인천이 빽빽한 일정을 이겨내기 위해 35라운드 광주전에서 꺼내 들었던 명단과 비슷한 상황으로 나설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몇 가지 염두에 두어야 하는 것이 있다. 울산 역시 인천과 마찬가지로 AFC 챔피언스리그가 남아 있다는 것이다. 24일 인천과 맞대결을 펼친 울산은 4일 뒤 조별리그 5차전을 치러야 한다. A매치 휴식기 이후 경기 간격과 조직력을 되찾기 위해 주전 선수들을 출전시킬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문제는 태국까지 향해야 한다는 것이다. 울산은 인천과 태국으로 이어지는 2연속 원정 경기에 대비하기 위해 인천과의 경기에서는 로테이션을 둘릴 가능성도 존재한다. 명단을 쉽게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다. 또한, 현재 1위 티아고와 단 1골 차이로 득점 2위를 기록하고 있는 주민규의 득점왕 도전 역시 주목해볼 요소 중 하나다. 지난 시즌 리그 최다





vs YOKOHAMA PREVIEW

'시즌 마지막 홈경기', 요코하마 상대로 다시 한번 승리 도전

글 = 성의주 UTD기자 (sung.euju.shin@gmail.com)

인천의 역사적인 첫 AFC 챔피언스리그 본선 상대였던 요코하마 F. 마리노스를 이번에는 홈으로 불러들인다. 조별리그 5차전인 이 경기는 11월 마지막 홈경기이자 인천의 2023년 마지막 홈경기다. 인천은 마지막 홈경기를 웃음으로 장식하기 위해 1차전 4-2 승리의 자신감을 가지고 다시 한번 승리에 도전한다.

인천은 지난 산동 타이산과의 조별리그 4차전에서 3-1로 패배하며 G조 3위로 내려서게 됐다. 1위는 16강에 직행하게 되지만, 2위는 다른 조와 비교하여 상위 6개 팀만이 16강으로 향할 수 있다. 아시아 무대 진출이라는 꿈, 그 이상을 바라보야 하는 때다. 이를 이루기 위해서는 승리가 절실히.

첫 맞대결에서는 인천이 완벽한 승리를 가져갔으나 사실 대회 전까지 요코하마는 인천이 속한 G조에서 가장 강력한 팀으로 여겨졌다. 요코하마는 최근 5년간 우승한 두 차례 경험했으며, 현재도 우승 경쟁을 하고 있다. J리그에서 두 번째로 많이 우승했고, J리그 출범 후 1부리그에서 한 번도 강등되지 않은 팀이다. 하지만 그런 요코하마도 AFC 챔피언스리그에서는 위력을 발휘하지 못했다. 1989-1990 시즌 준우승을 달성한 것 외에는 눈에 띄는 성과가 없다. 4강 이상 진출한 것도 이때가 유일하다. 이러한 징크스는 요코하마에게 불안감으로 작용할 수 있다.

하지만 요코하마도 만반의 준비를 갖춰 나설 것으로 보인다. 지난 맞대결에서 예상치 못한 일격을 당했던 만큼 이번에는 철저한 분석을 통해 인천을 공략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량 실점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골문을 더욱 단단히 걸어 잠글 것은 쉽게 예상되는 바다. 이를 막기 위해 인천의 공격

더 날을 세워야 한다. 수비도 주의해야 한다. 조별리그 1차전에서 4득점이나 한 것은 대단한 성과였으나 실점은 빼어났다. 모두 세트피스를 통한 실점이었기 때문에 더욱 아쉬움을 남겼다. 이번에도 주의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요코하마는 세트피스가 아니더라도 뛰어난 공격력을 가진 팀이다. 요코하마는 현재 J리그 최다득점 팀으로, 31경기 60득점을 기록하고 있다. 특히 유의해야 하는 선수는 브라질 출신의 공격 트리오다. 에우베르, 안데르 송 로페스, 안 마테우스의 삼각편대가 기록한 득점은 총 34점으로, 팀 득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특히 중앙 공격수인 안데르 송 로페스는 리그 31경기에서 21득점을 기록하며 득점 1위를 달리고 있다. 그의 발길을 조심해야 승리에 더 가까이 다가설 수 있다.



'인천 새로운 비상의 주역' 이명주 "나는 인천에 우승하러 왔다"

글 = 박범근 UTD기자(keu0617@naver.com)

인천유나이티드의 비상이 올해도 계속 있다. 2년 연속 파이널A 진출, AFC 챔피언스리그 본선 등 인천은 그동안 도달하지 못했던 곳을 한 발자국씩 밟으며 나아가고 있다.

매년 잔류 경쟁을 하던 인천이 상위권 팀으로 올라서 기까지, 2020년 여름 조성환 감독의 부임, 그 해 부산과의 홈 최종전 승리와 같은 몇 번의 중요한 모멘텀이 있었다.

인천의 운명을 바꾼 또 하나의 순간은 2022년 이명주 영입이었다. 중원에서 경기 전체를 지배할 수 있는 이명주가 팀에 합류하면서 인천의 전력이 한 층 더 상승했다. 더 강해진 인천은 예전과 완벽히다른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했고, 그 상승세에 힘입어 파이널A, ACL과 같은 더 높은 무대로 올라갔다. UTD기자단은 인천을 정상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이명주와 이야기를 나누었다.





올 시즌 반면교사 삼아 내년에는 부상 없이 뛰고 싶다

11월, 인천은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인천은 이달 1일 전주에서 전북현대와 FA컵 준결승전을 치렀다. 그다음 인천은 중국으로 이동해 7일 산동 타이산과 AFC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4차전 경기를 했다. 이어서 바로 한국으로 돌아와 12일 홈에서 전북현대를 상대한다. 하지만 아쉽게도 이명주는 이 일정을 팀과 함께하지 못했다. 지난달 20일, 리그 34라운드 포항스틸러스와의 경기 도중 당한 부상 때문이었다.

이명주는 "포항전에 부상을 입었다. 무릎 내 측에 뼈를 지탱해 주는 인대가 부분 파열되었다는 진단을 받았다. 이 인터뷰가 나가는 12일 전북전에도 출전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11월 말 복귀를 목표로 재활하고 있다"라고 현재 몸 상태를 전했다.

인천은 올 시즌 K리그1 12팀 중 가장 많은 경기를 치렀다. 리그, ACL, FA컵은 물론, K리그에서는 유일하게 ACL 플레이오프까지 나서면서 인천은 아주 바쁜 한 해를 보내고 있다. 경기 수가 많은 시즌이었기 때문에 선수들의 체력 부담은 예년보다 더 커울 것이다. 하지만 이명주는 "경기를 더 많이 할 수 있어서 좋았다"라고 예상과 다른 답을 이야기했다.



인천에서의 목표는 우승과 후배에게 본보기가 되는 선수

이명주의 합류 이후, 인천은 이전과 완벽히다른 팀이 되었다. 승강제가 도입된 이래, 인천의 주전장은 순위표 가장 밑부분이었다. 그러나 이명주를 영입한 2022년부터 인천은 상위권에서 시즌을 치르는 팀으로 성장했다. 인천의 모든 성과를 이명주가 이뤄낸 것은 아니지만, 이명주가 없었다면 분명 달성하기 어려운 결과였다.

인천을 상승세로 이끈 이명주에게 입단 초기와 지금의 인천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물었다. 이명주는 "훈련 커리티가 많이 올라갔다. 팀 내에서 11대11 경기를 하면, 예전에는 주전 조가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이제는 누가 주전으로 뛰어도 손색없을 만큼 큰 차이가 없다. 선수 개개인의 실력이 많이 좋아졌다"라고 답했다.

운동량을 줄이라고 조언해 주셨지만, 그래도 원래 하던 대로 개인 운동을 했다. 그런데 운동량이 많았던 뒷인지 근육 부상도 있었고, 나도 모르게 지쳤던 것 같다. 내년에는 부상이 없도록 몸 관리를 더 잘하고 싶다"라고 시즌 중 힘들었던 순간을 되돌아봤다.

최근 인천은 이명주뿐만 아니라 신진호, 멜 브리지 등 여러 선수가 부상으로 전력에서 이탈하는 악재를 맞았다. 주축 선수들의 부상에 가장 마음 아픈 사람은 수장 조성환 감독이다. 조성환 감독은 부상 선수들의 등번호를 자신의 모자에 새기며 경기애 나서지 못하는 선수들을 위로했다.

그 모습을 본 이명주는 "감독님 성격상 큰 용기를 내고 하신 일이라 생각해서 굉장히 감사하다. 한편으로는 조금 민망하기도 했다. (신)진호 형이나, 멜브리지를 위해 해주신 것을 먼저 봐서 '다음에는 설마 내 등번호도 써주시는 것일까'라는 생각도 하긴 했다. 기대는 아니고, 설명하기 어려운 약간의 민망함이 있었다. 그래도 선수로서 감독님께 감사하다"라고 조성환 감독에게 감사함을 표현했다.

이명주가 인천에 온 지 어느덧 2년이 지났다. 그러나 이명주는 인천에서 이루고자 한 목표를 아직 달성하지 못했다고 한다. 이명주는 "내 목표는 아직 현재 진행형이다. 인천에서 선배로서 후배들에게 본보기가 되기를 바라고 있다. 또, 팀의 전통이나 문화를 더 좋은 쪽으로 만들어가고 싶다. 아직 내 역량이 부족해서 만족할 만큼 목표를 이루지 못했다. 팀 성적도 당연히 목표로 두었다. 파이널 A, ACL도 중요한 과제지만, 나는 인천에 우승하려고 왔다. 개인, 팀 목표 모두 아직 진행 중이다"라고 더 큰 포부를 전했다.

인천은 올해 창단 이후 처음으로 2년 연속 파이널 A에 진출했다. 인천은 리그뿐만 아니라, ACL과 FA컵에서도 많은 승리를 쟁기며 강팀으로서 입지를 다져 나가고 있다. 이명주는 "2년 연속 파이널 A에 올랐지만, 아직 많이 부족하다. 그래도 팀 전체가 정신적으로 많이 좋아진 것 같다. 선수들이 예전보다 더 승리를 원하고 있다. 이기면 연승을 이어가기 위해서, 지면 분위기를 반전하기 위해 각성해서 다음 경기를 준비한다. 1년이라는 긴 시간 또한 이 마음가짐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다. 우리 팀 선수들의 멘탈을 칭찬하고 싶다"라고 두 시즌 연속 파이널 A에 진출한 소감을 이야기했다.

올 시즌 인천의 가장 큰 키워드는 단연 ACL이다. 그중에서도 4-2로 승리한 첫 경기 일본 요코하마 F. 마리노스 원정은 팬들에게도, 선수들에게도 강렬한 기억으로 남을 경기였다. 이명주도 마찬가지였다. 이명주는 "팬들이 역에서 모여 경기장까지 걸어오면서 응원하는 것을 봤다. 이 경기를 위해 적금을 깬 분들의 이야기도 들었다. 20년 동안 팬들이 이 순간을 기다려왔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요코하마에서 인천 팬들의 응원을 보니 뭉클하고, 감동적이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명주는 "팬들이 꾸준히 응원해 주신 덕분에 인천이 어려운 시기를 잘 버텨낼 수 있었던 같다. 그래서 선수단이 팬들에게 좋은 추억을 반드시 선물해 드리고 싶었다. 그 마음으로 열심히 뛰었고, 다행히 좋은 결과로 이어져서 매우 기뻤다"라고 요코하마 원정 경기에 응원 온 팬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블로그, 팬들이 재미있게 봐 주셨으면 좋겠다

인천에 처음 합류했을 때도, 일본 원정에서도, 복귀를 위해 재활 중인 지금도 이명주를 달릴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은 팬이었다. 이명주를 향한 팬들의 응원만큼이나 팬들을 위한 이명주의 마음도 진심이다. 이명주는 경기장 안뿐만 아니라 밖에서도 팬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이명주는 최근 개인 블로그에 매번 경기 소감을 남기며 팬들과 소통하고 있다.

이명주는 "개인적인 기록을 남기고 싶어서 글을 쓰기 시작했다. 경기 비하인드 스토리나 감상을 알려 드리면, 팬들이 조금이나마 더 재미있게 글을 읽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해서 블로그에 글을 쓰고 있다. 개인적으로 축구를 하면서 경험했던 것들도 글로 남기고 있다"라고 블로그를 시작한 계기를 알렸다.

이명주가 쓴 글 중 팬들 사이에 화제가 된 내용이 있었다. 카야FC와의 홈경기 감상을 남긴 글 마지막에 이명주는 '뛰어뛰어 서포터즈'라는 문구를 적었다. 경기 도중 인천 선수들의 발걸음이 무거워지면, 팬들은 선수들에게 '뛰어뛰어 유나이티드'라는 응원 구호를 외치는데, 이 글에서는 반대로 이명주가 팬들에게 그 메시지를 전달했다.

이명주는 "카야전은 벤치에서 경기를 시작해서 팬들의 응원을 잘 볼 수 있었다. 전반에 팬들이 다른 경기와 다르게 오버 페이스를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ACL 첫 홈경기여서 그러셨던 것 같다. 이러다가 후반에는 힘드실 것 같다는 생각을 했는데, 후반에 팬들이 정말 지치셨던 것 같다. 초반부터 대량 득점하고, 후반 흐름이 루즈해서 그러셨던 것일 수도 있다. 후반에도 열심히 응원하자는 의미로 그 문구를 적었다. 재미로 적었는데, 팬들도 재미있게 받아 드리셨을지는 모르겠다"라고 웃으며 이야기했다.



어린 선수들이 일궈낸 승리, 지금의 나를 반성하게 되었다

지난 리그 35라운드 광주FC 원정 경기에서 인천은 18인 엔트리 중 11자리를 22세 이하 선수들로 채우는 파격적인 라인업으로 2-0 승리를 거두었다. 부주장 이명주는 어린 선수들이 올린 성과에 뿌듯해했다. 이명주는 "어떻게 안 지치고 계속 뛸 수 있는지 신기했다. 어린 선수들이 1년 동안 많이 고생했다. 이 경기로 모든 노력이 보상되지는 않지만, 앞으로 더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나의 신인 시절도 돌아보게 하는 경기였다. 어린 선수들이 간절하게 뛰는 모습을 보고 지금의 나를 반성하게 되었다"라고 22세 이하 선수들을 칭찬했다.

부주장인 이명주에게 어린 선수들을 위해 조언을 얼마나 많이 하고 있는지 묻자, 이명주는 "처음에는 조언을 많이 해주고 싶었지만, 지금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어서, 이명주는 "각자의 사정이나 자라온 환경이 달라서 내 조언이 정답이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훈련이나 경기를 하면서 나와 같은 포지션 선수들에게 내 생각을 말해주는 정도다. 같이 밥 먹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는 하지만, 내가 먼저 나서서 어린 친구들에게 조언하지는 않는다"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이명주는 "올해 팬분들이 그 어느 때보다 경기장을 많이 찾아와 주셔서 선수들이 기분 좋게 뛰었다. 팬들과 함께 승리 세리머니를 더 많이 하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한 날도 많아서 죄송하다. 하지만 경기에서 졌을 때도 팬분들이 변함없이 응원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시즌이 한 달 정도 남았다. 우리 모두의 목표를 이뤄서 마지막에는 팬분들과 함께 좋은 추억 만들고 싶다"라고 팬들에게 메시지를 남기며 인터뷰를 마무리했다.





리그 2경기 만에 데뷔골 터트린 최우진 측면 수비수 하면 생각나는 선수가 되고 싶다

글 = 손지호 UTD기자(thswlgh50@ajou.ac.kr)



인천 선택의 이유 팬들의 멋진 응원 때문

31라운드 강원FC와의 원정 경기에서 뒤늦게 데뷔 무대를 가진 신인 선수가 있다. 짧은 출전 시간에도 큰 임팩트를 보여준 후 2번째 출전이었던 35라운드 광주FC와의 경기에서 벼락같은 결승골을 만들어 냈다. 그 주인공은 바로 인천의 측면 수비수 최우진이다. 어떤 신인 선수보다도 강렬한 인상을 남긴 최우진을 UTD기자단이 만났다.

최우진은 고등학교 시절 평택진위FC U-18에서 주전 수비수와 공격수로 팀의 주축으로 활약했다. 특히 고등학교 2학년 이었던 2021년 3관왕을 차지했고 고등학교 3학년이 돼서도 3개 대회 우승과 지역리그까지 휩쓸며 4관왕을 달성했다. 이후

고교선발팀으로도 뽑히는 등 고교 무대에서 주목받는 유망주였다. 이러한 활약을 바탕으로 최우진은 올해 인천유나이티드에 신인 선수로 입단했다.

최우진은 "고등학교 3학년 말에 결정이 난 뒤 감독님께 들었을 때 정말 믿기지 않았다. 그 당시 인천이 리그 4위에 올라있었는데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K리그1 상위권 팀에 갈 수 있다는 사실이 정말 좋았다"고 입단이 결정될 당시 상황을 이야기했다.

최우진은 촉망받는 유망주였기 때문에 많은 프로 팀의 러브콜이 있었다. 그럼에도 인천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 최우진은 "그 전에 인천 경기를 많이 보러 갔었는데 팬들의 응원하는 모습이 정말 열정적이고 멋있었다. 그래서 많이 끌렸던 것 같다"라고 이유를 밝혔다.



기다림 끝에 얻은 데뷔전, 자신 있게 도전했다

최우진은 지난 8월 리만FC와의 연습 경기에 출전해 비공식 데뷔전을 가졌다. 이날 과감한 돌파와 개인 기술을 보여주며 팬들의 기대감을 한층 높였다. 이후 최우진은 오랜 기다림 끝에 리그 31라운드 강원과의 원정 경기에서 선발 명단에 이름을 올리며 공식 경기 데뷔전을 가지게 됐다. 최우진은 "경기에 나서기 전까지 많은 연습을 했고 경기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플레이할지 이미지 트레이닝도 많이 했었다. 이걸 토대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려고 했다"고 데뷔전 당시를 회상했다.

이어 최우진은 "감독님과 코치님께서 많은 부분을 세밀하게 조언해 주셨다. 특히 데뷔전을 놓해도 계속 기회를 줄 거니까 부담 없이 하고 싶은 플레이 자신감 있게 하라는 조언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라고 덧붙였다.

최우진은 이날 경기 초반 긴장한 모습이 눈에 보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제 기량을 마음껏 펼치며 자신감 넘치는 플레이를 펼쳤다. 긴장을 털어낼 수 있던 이유에 대해 물었다. 최우진은 "긴장을 했을 때 첫 터치가 좋거나 드리블이 성공하면 점점 긴장이 풀리는 스타일이다"라며 "경기 초반 드리블과 패스가 잘 되면서 빨리 긴장이 풀리고 자신감 있게 할 수 있었던 것 같다"라고 이야기했다.

최우진은 이날 45분이라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지켜보는 많은 이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최우진은 "첫 리그 데뷔전이라 서툰 부분도 많고 실수도 많았다. 하지만 스

스로를 믿고 계속 자신감 있게 도전했던 것 같다"라고 데뷔전 무대를 평가했다.



2경기 만에 평생 잊을 수 없는 순간 만들다

최우진은 2달 뒤 35라운드 광주와의 원정 경기에 또다시 선발로 이름을 올렸다. 당시 조성환 감독은 주축 선수 대부분을 원정길에 동행 시키지 않고 어린 선수들로 명단을 꾸렸다. 선발 명단에만 U-22 선수 7명이 있었다. 모두가 깜짝 놀랄 만큼 파격적이었다. 조성환 감독은 이 경기 이후 이어지는 경기들을 위한 로테이션 차원의 선택이었다고 설명했다.

베테랑 선수들 없이 어린 선수들끼리의 원정은 심리적으로 더 긴장될 수 있다. 하지만 최우진은 자신감이 넘쳤다. "걱정은 조금 있었지만 어린 선수들끼리 훈련도 같이 하고 생활도 같이 해서 많이 가깝다 보니 서로를 잘 알아 믿고 의지할 수 있었다. 절대 진다는 기분이 안 들었다"라고 이야기했다.

결국 어린 선수들이 큰일을 해냈다. 최정 예로 나온 상승세 광주를 상대로 2-0 승리를 거뒀다. 그 중심에는 최우진이 있었다. 최우진은 후반 30분 벼락같은 중거리 슈팅으로 팀의 선제골이자 결승골을 만들었다. 리그 2경기 만에 K리그 데뷔골을 성공시켰다. 이날 활약을 바탕으로 최우진은 경기 M.O.M과 35라운드 베스트 11에 선정됐다.

최우진은 "골을 넣으면 무엇을 할지 많이 생각해 놨는데 막상 실제 상황이 되니까 너무 좋아서 아무 생각도 안 났다. 그저 팬들하고 좋아하기만 했다. 내가 골을 넣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라고 득점 당시를 떠올렸다. 어떤 세리머니를 생각했는지 물었다. 최우진은 "경현이 형이랑 점프 세리머니도 생각했고 시즌 시작 전 동계 훈련 때 춤을 췄는데 그 춤을 출까 생각도 했다"라고 아쉬움을 담아 말했다.

이날 같이 뛴 입단 동기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는지 물음에 최우진은 "어린 선수들끼리 같이 힘을 모아 뛰어 이겨서 평생 잊지 못할 기억일 것 같다. 같이 열심히 성장해서 신인답지 않은 모습 보여줘서 인천의 미래가 되자"라고 말을 전했다.



더 큰 꿈 꾸는 최우진, 최고를 노린다

프로 무대를 직접 뛰어보니 체감이 어떤지 물었다. 최우진은 "연습 경기와 다르게 관중이 있어 더 긴장된다. 고등학교 때와 템포도 달라 적응하기 힘들었다. 하지만 형들하고 많이 부딪히고 적극적으로 하다 보니 빠르게 적응하고 더 발전할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이제 막 데뷔전을 가진 최우진은 프로 입성 후 첫 번째 목표를 달성했다. 다음 목표가 무엇인지 물었다. 최우진은 "K리그1 전체 베스트 11에 이름을 올리는 것"이라고 자신감 있게 얘기했다. 이어 앞으로 인천 팬들에게는 어떤 선수로 기억되고 싶은지 물음에는 "주 포지션이 사이드 백인데 팬들이 사이드 백을 떠올렸을 때 최우진이 생각나도록 만들고 싶다. 그리고 이 선수에게 공이 갔을 때 걱정이 안 되는 선수로 기억되고 싶다"라고 이야기했다.

마지막으로 매거진을 통해 팬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는지 물었다. 최우진은 "항상 경기를 보면 승부에 상관없이 열정적으로 많이 응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린다. 그 응원 덕분에 힘이 나서 경기장에서도 자신감이 생기는 것 같다. 지금보다 더 잘할 수 있도록 시즌 끝까지 많이 응원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다"라고 메시지를 전했다.



인천의 2023시즌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글 = 박범근 UTD기자 (keu0617@naver.com)

2023시즌도 어느덧 막바지에 이르렀다. 인천유나이티드는 리그 3경기 와 AFC 챔피언스리그(ACL) 2경기만을 남겨두고 있다. 남은 한 달, 인천의 초점은 리그보다 ACL 쪽으로 쏠려 있다. 조별리그 통과라는 확고한 목표가 있는 ACL과 달리, 리그에서는 실질적으로 얻을 수 있는 보상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인천은 최대 목표였던 파이널A 진출을 이미 이뤄냈다. 다음 시즌 AFC 챔피언스리그 엘리트 티켓이 걸린 2, 3위권 도약은 현실적으로 어려워졌다. 리그에서의 동기부여는 다소 느슨해진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인천의 2023시즌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리그에서 인천이 목표로 삼아야 할 과제들이 몇 가지 남아있다. <THE UNITED> 11월 호에서는 마지막 한 달 동안 인천이 노릴 수 있는 목표와 관전 포인트를 정리했다.



인천 사상 첫 리그 도움왕에 도전 중인 제르소

올 시즌 인천에는 개인상에 도전하고 있는 선수가 있다. 그 주인공은 바로 제르소다. 제르소가 노리고 있는 수상은 도움왕이다. 현재 제르소는 리그 도움 6개로 도움 순위 6위를 기록 중이지만, 이 부문 선두인 포항 박성동과의 차이는 단 2도움이다. 남은 3경기에서 충분히 역전할 수 있는 격차다.

인천은 그동안 도움왕을 배출하지는 못했다. 인천 소속으로 득점왕과 리그 베스트일레븐을 수상한 선수는 있지만, 도움왕은 한 차례도 없었다. 1999 시즌 K리그 도움왕 수상자 변재성 코치(당시 전북 소속)의 경험이 제르소에게 필요한 순간이다.



인천, 팀 통산 K리그1 최다 승점, 승리 도전

남은 리그 3경기에서 인천은 팀 통산 K리그1 최다 승점과 승리에 도전한다. K리그가 1, 2부로 나뉜 2013년 이후, 인천의 한 시즌 최다 승점은 바로 지난해 기록한 54점이다. 한 시즌 최다 승은 2015년과 2022년의 13승이다.

올 시즌 인천은 35라운드까지 13승 13무 9패, 승점 52점을 기록 중이다. 남은 3경기에서 1승만 거두면, 인천 역대 K리그1 한 시즌 최다 승점과 승리를 동시에 경신한다. 시즌 종료까지 패하지만 않아도 한 시즌 최다 승점을 기록을 깔아치울 수 있다.

인천은 팀 통산 한 시즌 최소 패 기록도 기록에 두고 있다. 2부리그가 도입된 2013년 아래, 인천의 패배가 가장 적었던 시즌은 리그 4위에 올랐던 지난해다. 당시 인천은 리그 38경기에서 10번밖에 지지 않았다. 현재 9패를 기록 중인 인천은 3경기에서 한 경기도 패하지 않으면, 역대 한 시즌 최소 패배 기록 또한 새로 쓸 수 있다.

2005년 리그 준우승 이후 역대 최고의 시즌으로 불린 지난 시즌, 인천은 한 시즌 최다 승리와 승점, 최소 패배 기록을 경신했다. 인천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리그에서 호조를 이어가며 팀 기록을 1시즌 만에 갈아치울 기회를 맞이했다. 승강제 도입 후 최고의 시즌이었던 지난해보다 더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는 2023시즌의 인천이다.



어린 선수들의 성장

올해 조성환 감독의 인터뷰 중 가장 많이 등장한 단어는 '선택과 집중'이다. 리그, ACL, FA컵 등 치러야 할 경기가 많았기에 선수들의 체력 관리가 인천의 주요 과제로 떠올랐었다. 조성환 감독의 '선택과 집중은 더 큰 목표를 위해 몇몇 경기에서는 결과만큼이나 주축 선수들의 체력 관리를 우선시할 수밖에 없었음을 시사한 표현이었다.

리그보다 다른 대회의 중요성이 더 커지자 조성환 감독은 지난 리그 경기에서 파격적인 라인업을 꺼내 들었다. 지난달 28일, 인천은 리그 35라운드 광주FC 원정에서 18인 엔트리 중 11명을 22세 이하 선수로 구성했다. 신인 선수 7명이 경기에 출전했고, 그중 4명은 그전까지 리그 경기에 단번도 나서지 못한 선수들이었다.

어린 선수들이 주축을 이뤘지만, 인천은 광주전에서 2-0으로 승리했다. 이 경기를 통해 인천의 유망주들이 K리그1에서도 경쟁력이 있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능력을 보여준 인천의 어린 선수들은 리그 경기에서 다시 기회를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실제로 광주전 직후 기자회견에서 조성환 감독은 22세 이하 선수들의 출전 시간이 늘어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어린 선수들이 경기에 나선다면, 곧바로 결과를 내야 하는 ACL보다는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리그 경기일 것이다. 그렇다면, 남은 리그 경기에서 어린 선수들의 활약과 성장을 지켜보는 것도 하나의 재미있는 관전 포인트가 될 수 있다. 이들 중 몇몇 선수는 곧바로 다음 시즌에 인천의 주전 선수로 도약할 수도 있고, 어쩌면 누군가는 인천의 새로운 역사를 장식하는 선수로 성장할 수도 있다. 인천의 미래가 될 선수들의 프로 초창기 시절을 함께한 것이 나중에 큰 자랑거리가 될지도 모른다.

최대한 높은 순위로 시즌을 마무리 짓는 것

최대한 높은 순위로 시즌을 마치는 것도 남은 시즌 인천의 주요 목표다. 리그에서 얻을 수 있는 실질적인 보상이 없더라도, 상승 곡선을 그리며 한 해를 마무리해야 ACL과 내년 시즌에도 긍정적인 흐름을 이어 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35라운드 기준, 승점 52점으로 리그 5위에 있는 인천은 현실적으로 3위까지 노려볼 수 있다. 3위 광주와의 승점 차는 5점으로, 3경기 동안 역전하기 쉬운 격차는 아니지만, 아래 불가능한 승점 차도 아니다. 앞에서 언급한 세 가지의 과제를 인천이 모두 이뤄낸다면, 지금보다 더 높은 순위로 도약할 수 있다.

인천이 4위 이상의 순위를 차지하면, 기적적으로 다음 시즌 클럽대항전 출전권을 손에 넣을 가능성도 있다. FA컵 우승을 차지한 포항이 리그를 2위로 마무리하면, 2위 팀에게 주어지는 클럽대항전 티켓이 3위 팀에게, 3위 팀의 진출권은 4위 팀에게 넘어간다. 다만, 아직 세부 규정이 확정되지는 않아서 K리그1 3, 4위 팀이 참가하는 대회가 ACL 엘리트가 될지, 새로 칠성되는 ACL2가 될지는 결정되지 않았다. 그래도 확실한 것은 리그 4위 안에 진입한다면, 인천은 2년 연속 클럽대항전 진출이라 는 새 역사를 쓰게 된다는 점이다.

IUFC BLUE MARKET

인천축구전용경기장을 찾았던 팬 여러분이
더욱 쾌적하고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더 넓은 공간으로 이전 및 리뉴얼 오픈하였습니다!



📍 블루마켓 매장 위치

인천축구전용경기장 GATE-WG7 옆
기존 블루마켓 2층 (구 스카이라운지)

※기존 블루마켓 입구로 입장 후 내부 계단을 통해 2층 블루마켓으로 이동

🕒 운영 시간

경기 시작 2시간 30분 전 ~ 경기 종료 후 30분

※경기 중에는 매장 재정비를 위해 운영하지 않습니다. (하프타임 매장 이용 가능)

www.incheonutdmarket.com

온라인 블루마켓은 365일 OPEN



2023시즌 인천유나이티드
직관의 감동을 계속 느끼고 싶다면?

지금 인천유나이티드
공식 유튜브 / 카카오TV / 네이버TV
채널을 구독하세요!

인천의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YouTube



kakao tv



NAVER TV